

#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 Q방법론 접근

김신향<sup>1</sup>, 박시현<sup>2\*</sup>, 권덕화<sup>3</sup>

<sup>1</sup>신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3</sup>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 Images of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Nurses: A Q-Methodological Approach

Sinhyang Kim<sup>1</sup>, Sihyun Park<sup>2\*</sup>, Deokwha Kwon<sup>3</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sup>3</sup>An invited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ongbuk Science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Q방법론이 이용되었다. H시에 임상경력이 1년 이상 된 현직 간호사 135명, H대학교 간호학과 전체 학년 250명이 제시한 총 385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Q 모집단에서 40개의 Q 표본을 추출하였다. Q 표본의 분류는 현직 간호사 10명과 간호대학생 40명이 수행하였으며 PQ method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은 '교과서형', '현실형', '과도기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융합한 간호사 이미지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간호사 이미지의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뿐 만 아니라 의료 현장을 반영한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사, 이미지, 간호대학생, 융합, Q방법론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types of nurse's image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by using Q-methodology. Total 40 Q-samples were extracted from Q-population consisted of the 385 statements, which were collected from 135 nurses with more than one year clinical experience in H city and 250 nursing students at H university. The Q-sample classification was conducted by 10 nurses and 40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PQ method program. As results, the types of nurse's images were derived as 'textbooked', 'realistic' and 'periodic.'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analyzing the types of nurse image from both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the image of nurses, we propose not only to develop a systematic nursing curriculum but also to develop health and medical policies reflecting reality of care settings.

**Key Words** : Nurse, Image,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Q-Methodological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정보화, 고객 중심주의 확대로 의료소비자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화된 건강 제공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Corresponding Author : Sihyun Park(spark@inha.ac.kr)

Received January 30, 2019

Accepted April 20, 2019

Revised March 10,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하기 위해 간호사는 뚜렷한 간호 철학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의료 체계 내에서 전문직 지위 확보 및 영역 신장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호는 질적, 양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간호사는 보건의료환경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관리 중 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24].

간호교육의 목표는 이론·실습교육을 통해 전문적이고 질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 양성이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의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집약적인 의료 환경 처해 있는 임상 현장의 간호사는 타 보건의료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직무 소진, 직무 스트레스, 낮은 직무 만족도, 높은 이직률[2,3]을 보인다.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인상의 집합체로[4]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현실에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5]. 많은 연구 결과에서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 전문직관[6],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7], 직무만족[5], 조직몰입[8]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들의 잠재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간호사 고용,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책 결정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9].

한편, 교육과정을 통하여 구체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상적인 간호사 이미지와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혼돈과 갈등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5], 이러한 혼돈과 갈등은 간호사들의 위상 정립과 잘못된 역할이해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10].

간호사 이미지를 내용분석 한 국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한국 의학 드라마[11]와 인터넷 신문[12], TV 드라마[13], 임상실습 전 1, 2학년[14], 임상 실습 전과 후의 2, 3학년[15]을 대상으로 좋은 간호사 이미지만을 분석한 연구[16]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중매체에 의해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와 일부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 하였지만, 현직에 있는 간호사와 전 학년 간호대학생을 융합하여 좋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들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미지의 괴리감에서

오는 혼돈과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직 간호사와 전 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정의하고 그 유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Q 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성 구조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속성을 유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17]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에 종사하는 현직 간호사와 전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Q 방법론을 통하여 그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며, 바른 간호 전문직관을 교육하고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간호사 이미지의 주관성 유형을 탐색한다.
- 2)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유형에 따른 특성과 차이를 설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과 특성을 발견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자

#### 2.2.1 Q 모집단(Q-population)의 구성

Q 모집단은 Q 방법론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이다. 본 연구의 Q 모집단은 H시에 임상경력이 1년 이상 된 현직 간호사 135명, H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에서 4학년 250명 총 350명으로부터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간호사 란?”이었다.

### 2.2.2 Q 표본(Q-sample)의 구성

Q 표본은 Q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으로 보통 수십개로 구성된 카드 위에 쓰인 진술문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과 Q방법 연구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검토하였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각 진술문에 대한 이해도와 명확성 여부를 점검받아 수정·보완하였으며, 추가로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문항별로 진술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총 40개의 Q 표본이 선정되었다(Table 1 참고).

### 2.2.3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P 표본을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0명과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40명으로 구성하였다. 간호사의 연령, 결혼상

태, 임상근무경력, 근무부서 및 현 부서에서의 근무경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P 표본은 다양한 부서의 간호사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은 각 학년에 10명씩 해서 모든 학년에서 선정하였다.

### 2.2.4 Q 분류

Q 분류는 추출된 Q 표본(진술문)을 P 표본으로 하여 금 읽게 한 뒤 주관적인 의견의 동의성 정도에 따라 동의, 중립, 부정으로 크게 분류 하였고, 그 다음은 Q표본의 분포도에 동의, 중립, 부정을 세부적으로 나누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이유나 느낌에 대해 적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 제출의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자료 중 랜덤으로 40개의 자료를 골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현직간호사는 snowball sampling 방식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만나서 Q 분류를 시행하였으며, Q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Table 1. Q-samples

1. Nurses are people who care for and cure patients physically and mentally.
2. Nurses are people who should not make mistakes and be responsible for their performance.
3. Among medical personnels, nurses are people who most intimately sympathize and communicate with patients 24 hours a day.
4. Nurses are people who sacrifice and serve with a sense of duty.
5. Nurses are the most essential and symbolic figures in hospitals.
6. Nursing is an extreme profession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7.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requires a legal license based on systematic education.
8. Nurses work as assistants of doctors.
9.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have kind and warm personalities.
10.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limits nurses from taking care of their own body and health.
11.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requires level-headed and swift judgement.
12. Nursing is a stable profession and guarantees employment.
13. Nursing is merely a profession for earning money.
14.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is respected by all, a job which one can take pride in.
15. Nursing is a service job (for patients and guardians) rather than a professional job.
16.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involves lifelong learning and studying.
17. Nurses and doctors have horizontal working relationships and are mutually complementary.
18.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does not receive adequate pay and recognition compared to what nurses do.
19. The public image of nurses is negative.
20. Nurses are often disregarded and treated contemptuously(by doctors, patients, guardians, and the public).
21. For women, it is difficult to work as a nurse after marriage while raising children at the same time.
22. Nursing is an indispensable profession for humans.
23.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inevitably has high turnover rate.
24. The rights of nurses are often disregarded.
25. Nursing is a happy profession.
26. Nurses are people who serve for the vulnerable.
27. Nurses should be rational persons who are not swayed by emotions.
28. When working as a nurse, teamwork within the department is important.
29. At times, nurses need to be authoritative and strict.
30.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has a strong hierarchical order like the military.
31. Nurses are all-around troubleshooters in the hospital.
32.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performs work based on theoretical grounds.
33. Nurses are people who provide necess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patients.
34. Nurses look irritated, sensitive, and emotionless.
35.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requires flexibility upon considering situations.
36. Nurses are of use to families medically.
37. Nurses are emotional laborers.
38. Nursing is still a female dominant profession.
39. Nursing is a profession requiring one to always be on alert to prepare for emergency situations.
40. Nurses have no power (authority).

Table 2. Demographics of the Samples according to the Types of perceived Image of Nurse

Type	ID	Nurse/ Grade(student)	Gender	Age	Religion	Total career(nurse)/ Practical experiences (student)	Weighting factors
Standard type (n=18)	*SF20	2	Female	21	None	None	2.223
	SF39	3	Female	23	None	Yes	1.385
	SF29	4	Female	21	None	Yes	1.253
	NF3	Nurse	Female	28	None	5years & 11month	1.224
	NF7	Nurse	Female	47	None	24years & 10month	1.170
	SF13	4	Female	23	None	Yes	1.149
	SF17	1	Female	20	None	None	1.072
	SF18	1	Female	20	None	None	1.030
	SF30	3	Female	22	None	Yes	0.969
	SF14	1	Female	20	None	None	0.918
	SF8	3	Female	22	None	Yes	0.855
	SF9	3	Female	22	Have	Yes	0.805
	SF19	2	Female	21	None	None	0.704
	SF12	3	Female	22	None	Yes	0.661
	SF21	4	Female	23	Have	Yes	0.657
	NF6	Nurse	Female	29	None	6years & 5month	0.629
	SM6	1	Male	20	None	None	0.555
	Realistic type (n=13)	SF37	3	Female	23	None	Yes
*NF9		Nurse	Female	52	None	29years	1.909
SF41		3	Female	25	None	Yes	1.541
NF1		Nurse	Female	27	None	3years & 3month	1.176
SF7		4	Female	23	None	Yes	1.158
SM5		3	Male	25	None	Yes	1.042
SF11		3	Female	22	None	Yes	0.988
SF4		3	Female	22	None	Yes	0.881
SF10		3	Female	22	None	Yes	0.848
NF4		Nurse	Female	33	None	9years & 1month	0.815
SF3		3	Female	22	None	Yes	0.784
SM31		4	Male	23	None	Yes	0.748
SF16		3	Female	22	None	Yes	0.723
SF38	3	Female	25	None	Yes	0.518	
Transition type (n=11)	*SF24	3	Female	23	Have	Yes	1.702
	SM22	4	Male	25	None	Yes	1.688
	SF26	3	Female	25	None	Yes	1.519
	NF2	Nurse	Female	25	None	1years	1.098
	SF27	3	Female	23	Have	Yes	1.086
	SM23	3	Male	25	Have	Yes	0.829
	SF25	3	Female	23	None	Yes	0.797
	SF15	4	Female	24	None	Yes	0.768
	NF10	Nurse	Female	25	None	1years	0.611
	SF32	3	Female	22	None	Yes	0.592
	SF34	4	Female	23	None	Yes	0.585

Table 3. Eigen value, Variance and Correlations among Types

	Categories	Type I.	Type II.	Type III.
Eigenvalue		18.01	3.31	2.61
Variance		0.38	0.07	0.05
Cumulative variance		0.38	0.45	0.50
Correlations	Type I.	1.00		
	Type II.	.60	1.00	
	Type III.	.68	0.63	1.00

### 2.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PQ Program을 이용하여 P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서 빈칸이 있거나 문항을 중복으로 기입한 질문지 2개를 제외한 총 48명(간호사 8개, 간호대학생 40개)에 대한 자료를 코딩하였다. Q 표본에서 가장 비동의하는 문항 -4점부터 가장 동의하는 문항 +4점까지 점수화하였다. Q 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 2.2.6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I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171116-1A).

## 3. 연구결과

### 3.1 Q유형의 형성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3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연구대상 P표본 48명 중 18명이 제 1유형, 13명이 제 2유형, 11명이 제3유형에 포함되었다(Table 2 참고).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38%, 제 2유형이 7%, 제 3유형이 5%로 나타났고, 전체 유형의 설명력은 50%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간호사 이미지 유형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각 유형별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특히 제 1유형과 제 3유형이 .68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 3.2 유형별 특성

#### 3.2.1 제 1 유형: 교과서형

Table 4. Representative Q-samples and Z-scores in Types

Types	No	Q sample	Z
Standard type	1	Nurses are people who care for and cure patients physically and mentally.	1.85
	22	Nursing is an indispensable profession for humans.	1.59
	7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requires a legal license based on systematic education.	1.54
	3	Among medical personnels, nurses are people who most intimately sympathize and communicate with patients 24 hours a day.	1.46
	28	When working as a nurse, teamwork within the department is important.	1.21
	38	Nursing is still a female dominant profession.	-1.97
	40	Nurses have no power (authority).	-1.96
	8	Nurses work as assistants of doctors.	-1.58
	34	Nurses look irritated, sensitive, and emotionless.	-1.40
	13	Nursing is merely a profession for earning money.	-1.39
Realistic type	6	Nursing is an extreme profession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1.78
	18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does not receive adequate pay and recognition compared to what nurses do.	1.74
	39	Nursing is a profession requiring one to always be on alert to prepare for emergency situations.	1.42
	7	Nursing is a profession that requires a legal license based on systematic education.	1.35
	1	Nurses are people who care for and cure patients physically and mentally.	1.31
	15	Nursing is a service job (for patients and guardians) rather than a professional job.	-1.71
	26	Nurses are people who serve for the vulnerable.	-1.63
	38	Nursing is still a female dominant profession.	-1.56
Transition type	8	Nurses work as assistants of doctors.	-1.27
	25	Nursing is a happy profession.	-1.26
	17	Nurses and doctors have horizontal working relationships and are mutually complementary.	-1.07
	6	Nursing is an extreme profession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1.89
	2	Nurses are people who should not make mistakes and be responsible for their performance.	1.67
	3	Among medical personnels, nurses are people who most intimately sympathize and communicate with patients 24 hours a day.	1.48
	22	Nursing is an indispensable profession for humans.	1.46
	1	Nurses are people who care for and cure patients physically and mentally.	1.46
	40	Nurses have no power (authority).	-1.88
	38	Nursing is still a female dominant profession.	-1.77
31	Nurses are all-around troubleshooters in the hospital.	-1.34	
25	Nursing is a happy profession.	-1.30	
34	Nurses look irritated, sensitive, and emotionless.	-1.24	

제1유형의 대상자들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환자를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돌보고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Z=1.85$ )’,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직업( $Z=1.59$ )’,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법적인 면허를 가진 전문직( $Z=1.54$ )’, ‘의료인 중 환자와 24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공감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Z=1.46$ )’, ‘간호사로 일할 시 부서 내의 팀워크는 중요하다( $Z=1.21$ )’ 등이었다(Table 4 참고).

이러한 이유는 간호사의 명확한 역할이기 때문(P4,P20,P22,P25), 환자의 모든 방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P26), 보호자와 주치의가 모르는 환자의 상태를 간호사가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P3), 단순히 환자들에게 약을 주는 것이 아닌 전인적으로 돌보고 치료하기 때문(P22), 모든 간호 업무는 팀워크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P5), 국가고시에 의해 간호 행위 하기 때문(P17) 이라고 하였다.

반면 제1유형이 가장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직까지는 여성의 직업이다( $Z=-1.97$ )’, ‘힘이 없다( $Z=-1.96$ )’, ‘의사의 보조로서 일 한다( $Z=-1.58$ )’, ‘까칠하고 예민하며 감정이 없어 보인다( $Z=-1.40$ )’, ‘돈을 벌기 위한 직업(수단)일 뿐이다( $Z=-1.39$ )’ 등이었다(Table 4 참고).

이러한 이유는 남자간호사가 많이 났기 때문에(P17, P20, P22), 간호부는 적절한 힘이 있기 때문에(P25), 의사의 보조가 아니라 독립적인 간호를 수행하는 의사와는 다른 직업이기 때문에(P47), 의사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꼭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P37),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P16) 사명감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P38), 진정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한 직업이기 때문에(P17), 치유를 위해서 단호함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P3) 이라고 하였다.

### 3.2.2 제 2 유형: 현실형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극한직업이다( $Z=1.78$ )’, ‘하는 일에 비해 적절한 보수와 인정을 못 받는 직업이다( $Z=1.74$ )’, ‘항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해야하는 직업이다( $Z=1.42$ )’,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법적인 면허를 가진 전문직이다( $Z=1.35$ )’ ‘환자를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돌보고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Z=1.31$ )’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그 이유는 다른 3D 업종들에 비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업무강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P13, P15), 사회적 대우와 급여가 상당히 낮기 때문(P39), 감정노동과 더불어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직업으로 누구나 꺼려하는 직업특성 상 어쩔 수 없이 격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P7), 항상 병원에서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므로 긴장해야하기 때문(P12)으로 대답하였다.

제 2유형에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에는 ‘전문직이기보다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직종이다( $Z=-1.71$ )’,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Z=-1.63$ )’, ‘아직까지 여성 직업이다( $Z=-1.56$ )’, ‘의사의 보조로서 일한다( $Z=-1.27$ )’, ‘의사의 보조로서 일한다( $Z=-1.27$ )’, ‘간호사로 일하는 것은 행복하다( $Z=-1.26$ )’, ‘의사와 수평적인 동료관계이며 서로 보완적인 존재이다( $Z=-1.07$ )’ 등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이러한 이유는 의료·간호라는 학문을 기초해 하나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 직종이기 때문(P1, P15), 서비스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직 부분을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P11, P18)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P7), 의사와 수평적인 관계를 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P39)으로 대답하였다.

### 3.3.3 제 3 유형: 과도기형

제3유형에 분류된 대상자들은 ‘극한직업(3D: Dirty, Difficult, Dangerous)이다( $Z=1.89$ )’, ‘실수하지 않아야하고, 자신의 수행에 책임을 져야하는 직업이다( $Z=1.67$ )’, ‘의료인 중 환자와 24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공감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Z=1.48$ )’,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직업이다( $Z=1.46$ )’, ‘환자를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돌보고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Z=1.46$ )’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그 이유는 대중들의 인식이 3D 직업이기 때문(P5), 하는 일은 엄청 많은데 비해서 환경과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P30, P42), 바쁜 시간이 많아 밥도 제대로 못 챙겨먹고 초과 근무시간 심하기 때문(P8, P32),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의료법에 의해서 수행하기 때문에(P31), 간호사는 전인적인 측면에서 돌봄 이외의 건강유지, 증진의 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P23), 가장 중점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간호하기 때문(P2) 이라고 하였다.

제 3유형에 가장 비동의를 보인 항목에는 ‘힘이 없다( $Z=-1.88$ )’, ‘아직까지는 여성의 직업이다( $Z=-1.77$ )’, ‘병원 내에서 만능 해결사이다( $Z=1.34$ )’, ‘간호사로 일하는 것은 행복하다( $Z=-1.30$ )’, ‘까칠하고 예민하며 감정이 없어 보

인다( $Z=-1.24$ ) 등 이었다(Table 4 참고).

그 이유는 간호사는 대부분 열심히 힘 있게 일하기 때문에(P35), 간호사에 의해서만 환자의 간호(Care)가 가능하기 때문에(P23), 직업에는 남녀가 없다고 생각한다(P40), 남자 간호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P42), 남자간호사가 더 여자 간호사 보다 적응을 잘하기 때문(P34), 환자, 보호자들이 남자 간호사들을 어색해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하기 때문에(P33), 간호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진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P33), 병원 내 많은 일을 간호사가 해결해야 할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P8), 간호사는 대부분 친절하기 때문(P33), 간호사는 환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의 수용이 깊고 넓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P2)으로 대답 하였다.

### 3.3.4 유형 간 공통적 견해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난 세 유형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동의는 ‘환자를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돌보고 치료 해주는 사람이다’, 비 동의는 ‘아직까지는 여성의 직업이다’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 할 목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교과서형’, ‘현실형’, ‘과도기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유형별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에 의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간호사 이미지 유형은 제1유형인 교과서형이었다. 교과서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1, 2학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에 의해 면허증을 취득한 전문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간호대학생 2학년과 3학년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본질적인 치료만이 아닌 정서적 지지를 통한 전문직[15]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인터넷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는 고학력으로 지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존경과 신뢰받는 능력 있는 전문직[9], 2006년 국내 대한간호협회 여론조사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으로 당당히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2017년 시행한 갤럽조사에서도 간호사가 정직, 도덕성면에서 가장 신뢰 받는 전문직으로 선정되었다[19].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본 연구의 교과서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현직 간호사와 전 학년의 간호대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간호사 이미지는 전문직으로 꼭 필요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 교과과정에서부터 전문직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결과로 여겨진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전문직으로 면모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협회 및 관련 단체에서 간호사의 전문직 이미지를 홍보하는 전략이 역시 필요하다[12].

제2유형은 간호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으로 다른 3D 업종들에 비해 감정노동과 더불어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직업으로 사회적 대우와 급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실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근무 경력이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29년 간호사들과 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이 보건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Ha & Hyun (2014)[20]의 임상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사 자아상에 대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취급을 받는 ‘비평적 자아상’ 유형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한국 간호사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34개국 중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간호사 임금이 낮은 4개 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되며, 인구 1천 명당 간호사는 OECD 국가가 평균 6.7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7명이며,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 수비율은 미국이 5명, 일본이 7명, 영국이 8.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명~20명으로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압도적이다. 또한 2017년 11월 보건의료산업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가장 짧고, 노동 강도가 가장 높으며, 다른 보건의료인에 비해 간호사가 감정노동이 가장 높은 위험수준이며, 감정노동에 의한 고통 경험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21].

현실형 유형은 인력부족과 극심한 노동,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직접 경험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3, 4학년들이 임상실습 시 보고 느낀 것에 의해 나타난 현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겨진다. 부정적인 간호 이미지는 간호사의 자존감 저하와 직무만족도 감소시켜[22], 결국 간호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고, 임상현장을 떠나거나 다른 업무영역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23] 국가적으로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현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는 모든 보건의료시스템의 최전방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이며, 국민의 건강을 옹호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이다[24]. 하지만 간호사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조차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놓여 간호의 질에 악 영향을 주어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세 번째 간호사 이미지 유형은 과도기형이다. 간호사는 대중이 인식하는 3D 업종으로, 하는 일이 많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초과 근무가 심한 환경, 가장 환자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진인 간호를 수행하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도기형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는 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과 근무기간이 약 1년 정도 된 간호사였다. Back 등(2016)[25]의 시대별 흐름의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서 2010년에서 2014년에는 3D 작업환경, 전문가, 교육자, 관리자, 옹호자 순으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교과과정에서 배운 이상적인 간호사 이미지와 사회적 경험과 정보에 의한 현실의 간호사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혼돈과 괴리감은 간호사들의 직무만족[26],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10]. 2006년 한국궐립·대한간호협회에서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조사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직업으로 96.1%가 답변하였다. 간호사 이미지는 긍정적일수록 전문직 사회화, 전공 만족도[26,27],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 전문직관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되었다[28]. 또한 간호에 대한 대중의 생각과 고정관념은 자아개념, 자이존중감 및 직업 만족에 영향을 주어[29], 간호사들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전문직 사회화 과정에 악 영향으로 이어진다[20]. 이 유

형의 대상자들이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던 진술문 중에 현실형 유형과 동일하게 ‘간호사로서 일하는 것은 행복하다’가 있었는데 이는 간호사의 삶의 질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료 환경에 내실 있는 간호사의 복지보다 양적인 간호사에만 치중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을 최대한 줄이고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실형 유형과 동일하게 3D업종으로 표현되고 있는 간호사 근무환경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형은 전인간호를 수행하는 여성만의 직업이 아닌 남녀 직업을 인식하고 있었다. TV 드라마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는 매력 있는 전문직이며 여성만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과 남성의 직업, 장기적인 직업으로 묘사 된 연구결과[13]와 유사한 결과이다. 직업의 발전에 있어 성 역할의 차이가 없는 것이 중요하며[30] 간호사의 전문적 발전을 위해서도 간호사에 대한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자 간호사들은 다양한 대중매체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남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방안이 필요하며, 남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간호계의 중요한 일꾼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주관적인 구조와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탐색적 조사 연구로, 개방형 질문지, 심층면담 및 문헌고찰 등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최종적으로 40개의 Q 표본을 추출하였고, 이를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0명과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40명에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Q 요인분석은 PQ method Program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유형(교과서형, 현실형, 과도기형)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



는 간호사 이미지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 의의가 있으며,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간호 교육과정 개발과 간호사 복지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K. H. Jung. (2003).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nurse's experience in clin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9(4), 599-613.
- [2] J. H. Jin, H. O. Ju, K. S. Kim & Y. M. Park. (2017). Effects of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on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3(2), 142-150.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17.23.2.142>
- [3] S. H. Kim & Y. S. Yang. (2015). A meta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burnout of nurse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8), 387-40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8.387>
- [4] P. A. Kalisch & B. J. Kalisch(1986)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e and physician characters in the entertainment med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1(2), 179-195.
- [5] S. R. Kim, Y. J. Kim, S. H. Hong & C. S. Kim.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nurses and job satisfaction perceived by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1(2), 148-155.  
DOI: <http://dx.doi.org/10.14370/jewnr.2015.21.2.148>
- [6] E. S. Lee & M. S. Park. (2017).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311-3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311>
- [7] Y. H. Kim & Y. C. Kwon. (2018).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15-22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15>
- [8] Y. L. Lee. (2017). A study on nurse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3), 284-29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3.284>
- [9] B. J. Kalisch, S. Begeny & S. Neumann (2007).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ing Outlook*, 55(4), 182-188.
- [10] S. H. Lee & J. A. Kim. (2006). Image of nurse and it's determina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1), 52-62.
- [11] J. E. Kim, H. J. Jung, H. N. Kim, S. Y. Son, S. K. An & S. B. Kim. (2013) The image of nurses and their clinical role portrayed in korean medical tv dramas in recent 5 year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0(2), 120-132.
- [12] S. A. Park, S. G. Park, C. M. Lee, M. R. Yun & K. Y. Hwang. (2017). Image of nurses portrayed in internet newspapers. *Culture and Convergence*, 39(6), 677-700.
- [13] Y. H. Yom, K. H. Kim, H. S. Son, J. M. Lee, J. H. Jeon & M. A. Kim. (2015). An analysis of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on korean TV drama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1(3), 412-423.
- [14] Y. J. Kim. (2014). Study on the subjectivity about nursing student's image of professional nurse before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5), 24-23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5.22>
- [15] S. J. Park & B. J. Park. (2014). Content analysis of nurse imag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Korademea Ac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3696-370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6.3696>
- [16] D. L. Han. (2018). Images of good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1), 61-7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8.24.1.61>
- [17] H. K. Kim. (2009).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18] K. S. Chung. (2006. October. 11). Poll of nursing association nurse image of Korea gallup. *The Korea Nurses Association News*. p. 12.
- [19] R. Riffkin. (2017). *Americans rate nurses highest on honesty, ethical standards*. Retrieved from: DOI: <http://news.gallup.com/poll/1654/honesty-ethics-professionals.aspx>
- [20] E. H. Ha & K. S. Hyun. (2014). Nurses' self-image perceived by clinical nurses: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6(1), 117-128.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4.26.1.117>
- [21] J. H. Lee, S. Y. Gong, H. S. Kim, Y. M. Na, J. Y. Kim, N. S. Kim, et al. (2017, July). Emergency healthcare

industry in crisis Emotional labor, what is the alternative?-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Emotional Labor in Healthcare Industry-, Healthcare industry emotional labor studies. Seoul Labor Rights Center announced at the policy debate.

- [22] K. Fletcher. (2007). Image: Changing how women nurses think about themselves.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8(3), 207-215.
- [23] R. McSherry, P. Pearce, K. Grimwood & W. McSherry. (2012). The pivotal role of nurse managers, leaders and educators in enabling excellence in nursing care.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0(1), 7-19.
- [24] T. W. Lee, K. H. Kang, Y. K. Ko, S. H. Cho & E. Y. Kim. (2014). Issues and challenges of nurse workforce policy: A critical review and impli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 106-116.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4.20.1.106>
- [25] J. Y. Back, C. Y. Baek, S. Y. Song, C. Y. Oh, G. Y. Lee, D. B. Jung, et al. (2016). Image of nurse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Content analysis through search of major web site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Seoul.*
- [26] M. J. Ka, S. M. Kim, Y. K. Kim, S. J. Nam, L. M. Oh & J. S. Lyuck, et al. (2010).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44, 1-15.
- [27] J. Choi & N. S. Ha. (2009).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1), 54-63.
- [28]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38-546.
- [29] M. Takase, E. Kershaw & L. Burt. (2002). Does public image of nurses matter?.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8(4), 196-205.
- [30] F. L. Denmark & M. A. Paludi (2017). *Psychology of women: A handbook of issues and theories (3rd ed.)*. London: Praeger Publishers.

김 신 향(Kim, Sin Hyang) [정회원]



- 2011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심리치료학과(문학 석사)
- 2014년 8월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 박사)
- 2018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관심분야 : 노인 정신보건  
· E-Mail : kimsin210@nate.com

박 시 현(Park, Si Hyun) [정회원]



- 2007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5년 6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Nursing

(간호학 박사)  
· 관심분야 : 질적연구방법론, 폭력 및 학대예방  
· E-Mail : spark@inha.ac.kr

권 덕 화(Kwon, Deok Wha) [정회원]



- 2002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8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간호인적자원관리
- E-Mail : mary700309@gmail.com